

캐나다 한국인 대학생의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 대처양식 및 문화 정체성과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이 안 나

임 성 문[†]

충북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캐나다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대처양식, 문화 정체성,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캐나다 한국인 대학생 214명의 설문지 자료를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캐나다 한국인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차별감은 그들의 우울수준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둘째, 대처양식의 세 유형인 사려형 대처, 억제형 대처, 반동형 대처 모두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지각된 차별감, 억제형 대처, 모국문화 정체성의 삼원 상호작용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모국문화 정체성이 낮은 경우 지각된 차별감의 수준이 높을 때, 억제형 대처를 많이 사용하면 우울의 수준도 상응해서 증가하나, 억제형 대처를 적게 사용하면 우울수준이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각된 차별감과 사려형, 억제형, 반동형 대처의 각 유형과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의 우울에 미치는 삼원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논의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제한점 및 제언을 진술하였다.

주요어 : 문화 정체성, 반동형 대처, 억제형 대처, 우울, 이중문화 자기효능감, 지각된 차별감

* 이 연구는 임성문 교수의 지도하에 작성된 2013년도 이안나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임성문,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361-763)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E-mail : sungmoon@chungbuk.ac.kr

세계화의 흐름에 따른 문화의 다양성 추구, 문화 간 접촉, 여행, 파견, 유학, 이민 등의 인구이동으로 미국 내의 소수민족은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 아시아계 소수민족은 다른 소수민족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U.S. Census Bureau, 2013). 그들은 북미 주류사회의 새로운 규범, 언어,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한다(Gomez, Miranda, & Polanco, 2011).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로서(Berry, Kim, Minde, & Mok, 1987),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을 증가시켜(Sirin, Ryce, Gupta, & Rogers-Sirin, 2013), 아시아계 소수민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Miller, Yang, Farrell, & Lin, 2011).

아시아계 소수민족들이 빈번하게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의 하나는 차별로서(Cassidy, O'Connor, Howe, & Warden, 2004) 차별은 일터와 공공기관에 만연해있고, 대학기관도 마찬가지이다(Rankin & Reason, 2005). 지각된 차별감(Perceived Discrimination)이란 개인이 속해있는 집단의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개인이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이다(Flores, Tschann, Dimans, Bachen, Pasch, & de Groat, 2008). 아시아계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IS)의 하위척도인 지각된 차별감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주류문화에 거주하는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소수민족들도 경험하는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이다(Ying, Lee, & Tsai, 2000). 대다수의 아시아계 대학생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차별

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Alvarez, Juang, & Liang, 2006), 차별과 관련된 이민자들의 정신건강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Bernstein, Park, Shin, Cho, & Park, 2011). 그들은 차별을 경험할 때 우울(Gee, Spencer, Chen, Yip, & Takeuchi, 2007), 심리적 고통(Cristini, Scacchi, Perkins, Santinello, & Vieno, 2011), 낮은 심리적 안녕감(Schmitt, Branscombe, Postmes, & Garcia, 2014) 등을 경험하는데,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심리적 어려움은 우울이다(Portes & Rumbaut, 2006). 특히 다른 소수민족들과 비교했을 때 북미 한국계 이민자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해서 높은 우울을 경험한다(Min, Moon, & Lubben, 2005).

미국 내의 아시아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들에서, 지각된 차별감은 그들의 우울수준을 증가시켰고(Jung, Hecht, & Wadsworth, 2007; Wei, Ku, Russell, & Mallinckrodt, 2008),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남아시아 난민들과 한국계 이민자들이 지각하는 차별감도 그들의 우울수준을 높였다(Noh, Beiser, Kaspar, Hou, & Joanna, 1999; Noh & Kaspar, 2003). 중국계 미국인(Dion, Dion, & Pak, 1992)과 아프리카계 미국인(Pieterse & Carter, 2007)이 지각하는 차별감도 그들의 우울수준을 높였다 이렇듯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북미의 다양한 소수민족 집단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났고,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통제할 후에도 지각된 차별감은 우울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지만(Wei et al., 2008) 그렇지 않은 연구결과도 있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경우, Pieterse와 Carter(2007)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통제할 후에도 그들이 지각하는 차별감이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지만, 연구결과 그들이 지

각하는 차별감과 우울은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Sanders-Thompson, 2002; Taylor & Turner, 2002). 이러한 불일치한 결과는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증상의 정적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차별은 아시아계 소수민족들의 삶에서 겪는 중요 스트레스 중 하나이다(Clark, Anderson, Clark, & Williams, 1999; Dion, 2002; Harrell, 2000).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대처 모델에 의하면 개인의 대처양식은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데, Meyer(2003)도 소수민족 스트레스 모델을 통해서 개인의 대처양식은 지각된 차별감과 그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의 관계를 중재하는 조절 변인이라고 보았다. 효율적인 대처양식의 사용은 개인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Skinner, Edge, Altman, & Sherwood, 2003),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문제중심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을 참아 내거나 수용하는 정서중심 대처에 비해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키는 효율적인 대처이고, 이는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졌다(Compas, Connor-Smith, Saltzman, Thomsen, & Wadsworth, 2001; 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아시아계 미국인과 아시아계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스트레스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중심 대처가 그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우울의 관계를 조절하였다(Noh & Kaspar, 2003; Yoo & Lee, 2005). 하지만 문제중심 대처가 아시아계 소수민족들의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Noh 등(1999)에서 차별 상황을 직면하고 맞서서 대처하는 문제중심 대처는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Wei, Heppner, Ku와 Liao(2010)와 Wei 등(2008)에서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중심 대처인 사려형 대처는 차별과 우울의 관계를 조절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아시아 집단의 문화적 특성과 차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려운 문제를 직면할 때 지인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이 수용되는 북미의 개인주의 문화와는 다르게, 아시아의 집단주의 문화는 지인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고 타인의 욕구를 우선시한다(Yeh, Inman, Kim, & Okubo, 2006). 회피, 억제, 감정 및 정서 조절과 같은 정서중심 대처는 절제된 감정 및 정서를 미덕으로 여기는 아시아 문화의 가치와 일치한다(Pascoe & Richman, 2009). 따라서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와 불일치하는 문제중심 대처가 차별과 우울의 관계를 조절하지 못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한편 차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문제중심 대처의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였을 수 있다. 소수민족들이 지각하는 차별감은 대개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예측과 통제가 가능한 스트레스 요인보다 개인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데(Dion, 2002), 이러한 통제 불가능한 차별 상황에서는 문제중심 대처보다는 정서중심 대처가 더욱 효율적인 대처양식이다(Folkman & Lazarus, 1980; Lazarus, 1993).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남아시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차별 상황에 맞서서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적극적인 대처는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차별 상황에 맞서지 않고 참고 견디는 정서중심 대처인 인내는 차별과 우울의 정적 관계를 조절하는 완충요인으로 나타났다(Noh et al., 1999). 그러나 정서중

심 대처가 아시아계 소수민족의 차별과 우울의 정적 관계를 더욱 증가시킨 연구결과도 다수 있다. 미국 내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차별을 경험할 때,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억제형 대처를 사용하는 경우 그들의 우울은 증가하였다(Wei et al., 2008). Wei, Heppner 등(2010)에서도 아시아계 대학생들이 차별을 경험할 때 강한 정서적 반응을 표출하는 정서중심 대처인 반동형 대처를 사용하는 경우 그들의 우울은 증가하였다. 또한 Noh와 Kaspar(2003)에서도 차별 상황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거나 격한 감정을 타인에게 표출하는 정서중심 대처는 그들의 우울 수준을 더욱 증가시켰다. 이렇듯 아시아계 소수민족에서 대처양식이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개인에게 내재된 문화적 가치관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예컨대 모국문화의 가치관을 내재화한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스트레스 상황을 수용하며(Heppner, Heppner, Lee, Wang, Park, & Wang, 2006), 아시아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정서중심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Kim, Sherman, Ko, & Taylor, 2006). 반면 모국문화의 가치관보다는 주류문화의 가치관을 내재화한 개인은 문제중심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Ahn & Kim, 2008). 즉 개인의 문화 정체성이 차별과 우울 간 또 다른 조절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소속 집단의 문화 정체성은 주류사회에서의 편견 및 차별 등으로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소속 집단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심리적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다(Schmitt & Branscombe, 2002). 소수민족 집단의 모국문

화 정체성은 그들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웰빙과 관련 있고 그들이 경험하는 차별의 부정적인 경험을 완화시켜주는 보호요인 역할을 한다. Mossakowski(2003)에서 필리핀계 미국인들의 모국문화 정체성은 차별과 우울의 정적 관계를 완화시키는 조절효과를 나타냈고, Lee(2005)에서도 한국계 미국인 대학생들의 모국문화 정체성이 차별과 우울의 정적 관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연구들은 개인의 모국문화 정체성이 대처방식과 상호작용하여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Caldwell, Kohn-Wood, Schmeelk-Cone, Chavous, & Zimmerman, 2004; Mossakowski, 2003). Noh 등(1999)에서는 정서중심 대처양식과 모국문화 정체성의 상호작용이 차별과 우울의 정적 관계를 조절하였다. Noh와 Kaspar(2003)에서는 모국문화 집단의 지지와 교류가 중요한 조절변인으로 나타났다. 차별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대처하거나 격한 감정을 표출하는 정서중심 대처가 우울을 더욱 증가시켰는데, 모국문화 집단과의 교류가 활발하거나 모국문화의 사회적 또는 정서적 지지가 많은 경우 우울수준은 낮아졌다.

두 문화를 접하고 살아가는 아시아계 소수민족들에게 있어서 모국문화 정체성의 발달뿐만 아니라 주류문화 정체성의 발달 또한 그들이 두 문화적 맥락 속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며 살아가는데 중요하다(LaFromboise, Coleman, & Gerton, 1993). 그들이 한 문화의 정체성만을 형성한다면 두 문화를 접하고 살아가는 소수민족들만이 지닐 수 있는 다각도의 관점과 두 문화 속에서 발달시킬 수 있는 여러 범위의 대처를 습득할 수 없다. 두 문화 정체성의 내재화와 관련된 심리적 과정을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두 문화의 차이가 클

때에 더욱 그러하다(Brondolo, Brady, Pencille, Beatty, & Contrada, 2009). 따라서 아시아계 소수민족들이 주류문화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들의 모국문화 정체성뿐만 아니라 주류문화 정체성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시아계 미국 대학생들이 주류문화의 가치를 수용하면 그들의 심리적 불편감은 낮아진다(Nguyen & Benet-Martinez, 2013; Ruzek, Nguyen, & Herzog, 2011). 이렇듯 소수민족 집단원들에게 있어서 주류문화 정체성도 그들의 심리적 적응에 있어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아시아계 미국학생들의 약한 모국문화 정체성과 강한 주류문화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는 그들이 경험하는 차별감과 심리적 불편감의 정적 상관을 더욱 증가시켰다(Huynh, Devos, & Goldberg, 2014). 모국문화 정체성이 강한 개인의 경우, 차별을 경험할 때 그 원인을 개인 내부의 요인으로 돌리기보다는 그가 속한 집단, 즉 소수집단이라는 외부요인 때문에 차별을 경험한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강한 주류문화 정체성과 약한 모국문화 정체성을 지닌 개인의 경우, 차별을 경험할 때 외부요인보다는 개인의 내부요인 때문에 부정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지각하기 때문에 심리적 불편감이 증가한다.

서구문화권 미국인의 경우 문제해결, 인지재구조화, 사회적 지지와 같은 문제중심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반면,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아시아 가치관과 일치하는 문제회피, 자기비판, 철수와 같은 정서중심 대처양식을 주로 사용한다(Kim et al., 2006). 하지만 아시아계 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모국문화를 덜 고수하는 경우, 문제중심 대처양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계 미국

대학생들은 그들의 부모들보다 모국문화를 덜 고수하는데,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처양식은 문제중심 대처양식이었고, 정서중심 대처양식인 회피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hn & Kim, 2008). 문화는 개인이 스트레스를 직면할 때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제를 제공하는데(Aldwin, 2004), 이때 개인의 문화 정체성은 효율적인 대처양식의 습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rondolo et al., 2009). 따라서 강한 주류문화 정체성을 지닌 아시아계 소수민족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중심 대처양식의 사용이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문제중심 대처양식과 주류문화 정체성은 차별과 우울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계 소수민족들이 지닌 모국문화 정체성 또는 주류문화 정체성과 그들이 사용하는 대처양식의 상호작용이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일지 알아보았다.

한편 아시아계 소수민족들은 그들의 모국문화와 주류문화를 지속적으로 접하고 경험하는 이중문화자(Bicultural Individual)로서 그들이 접하고 경험하는 두 문화 도식을 충분히 내재화할 수 있고(Hong, 2010), 두 문화에서 수용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수도 있다(Hong, Benet-Martinez, Chiu, & Morris, 2003). 그들은 문화적 양식, 가치, 정체성과 관련된 그들의 모국문화와 주류문화의 문화적 흐름을 적절히 통합시킬 수 있다(Schwartz & Unger, 2010). 하지만 그들이 내재한 두 문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않을 수 있고(Hong, Morris, Chiu, & Benet-Martinez, 2000), 두 문화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을 직면할 수 있다(Stroink & Lalonde, 2009). 두 문화의 정체성 통

합의 수준이 낮은 개인은 두 문화를 공통점이 없는 이질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두 문화의 정체성을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 두 문화를 접하면서도 한 문화의 정체성만을 지닌다면 여러 대처양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것이고 여러 관점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키울 수 없다. 따라서 두 문화의 정체성을 내재화하고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Broncolo et al., 2009). 일상생활에서 두 문화의 정체성을 수용하는 것은 이중문화자들이 두 문화에 적응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Nguyen & Benet-Martinez, 2013; Omizo, Kim, & Abel, 2008). Nguyen과 Benet-Martinez(2013)의 메타연구에 의하면 개인이 주류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그 문화의 집단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문화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들이 접하는 두 문화 모두에 참여하고 관여하는 것이 두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중문화자들의 문화적응에 더욱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근래 이중문화 자기효능감(Bicultural Self-Efficacy)이 이중문화자의 적응과 안녕감을 설명하는 중요 요인으로 제안되고 있다.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이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의 모국문화와 주류문화에 속한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한 문화의 가치와 신념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의 가치와 신념을 받아들이며, 두 문화 속에서 적절하게 행동하고 적응적으로 기능하는 능력을 가리킨다(David, Okazaki, & Saw, 2009; LaFromboise et al., 1993).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상호작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중문화자들의 능력을 가리키는 독특한 구성개념으로(Hong, 2010), 높은 이

중문화 자기효능감을 지닌 개인은 모국문화와 주류문화를 상호 배타적이거나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Wei, Liao, Chao, Mallinckrodt, Tsai, & Botello-Zamarron, 2010). 이러한 이론적 개념을 기반으로 David 등(2009)은 두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아시아계 소수민족 대학생들의 이중문화 자기효능감 측정을 위한 이중문화 자기효능감 척도(Bicultural Self-Efficacy Scale; BSES)를 개발하였다.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을 지닌 이중문화자는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신체적, 심리적으로 더욱 건강하고(David et al., 2009; Schwartz & Unger, 2010; Wei, Liao et al., 2010), 소수민족 스트레스를 지각할 때 두 문화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문화적 맥락에 맞게 행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의 유연성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효율적이다. 따라서 그들이 우울을 경험할 경향이 낮아질 것이다. 또한 그들은 두 문화의 지지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어서 차별을 지각하더라도 우울에 덜 취약할 수 있다(Wei, Liao et al., 2010).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은 궁극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하는 보호요인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제안한다(David et al., 2009; Miller et al., 2011; Schwartz & Unger, 2010). Wei, Liao 등(2010)이 소수민족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은 소수민족 스트레스와 우울의 정적 관계를 완화시키는 조절변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Miller 등(2011)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이민 2세대의 경우에만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처방식을 제 1 조절변인으로, 문화 정체성과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을 각각 제 2 조절변

인으로 상정하고, 두 유형의 상호작용(대처방식 * 문화 정체성, 대처방식 *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이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지각된 차별감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대처양식이 조절효과를 갖는가?

연구문제 3.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대처양식과 문화 정체성의 상호작용이 조절효과를 갖는가?

연구문제 4.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대처양식과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이 조절효과를 갖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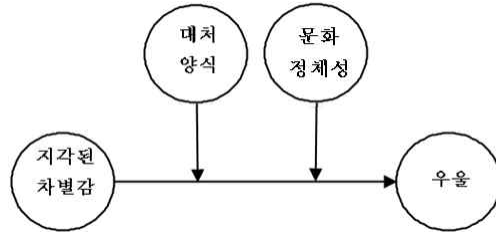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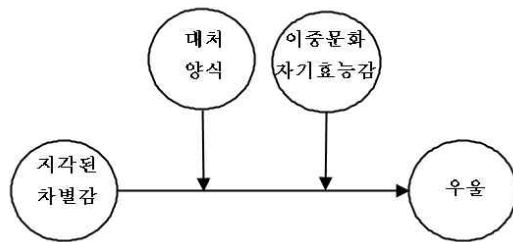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2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캐나다에서도 다문화 사회로 이루어진 동부지역에서 학업중인 한국인 대학생 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자료를 제외한 21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19~37세이었고 평균연령은 23.5세($SD=5.06$)이었다. 연구 참가자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학생 66%, 대학원생 5%, 기타 28.5%였다. 국적은 한국 국적자 66%, 캐나다 국적자 25%, 그리고 이중 국적자는 9%였다. 거주년수로는 5년 이상이 42.1%로 가장 많았고 2년 미만은 31.2%, 2년에서 5년 사이는 26.7%였다.

측정도구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지각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Cohen, Kamarck와 Mermelstein(1983)의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를 박준호와 서영석(2010)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는 두 개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지각 5문항(예: 지난 한 달 동안, 생활 속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한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과 부정적 지각 5문항(예: 지난 한 달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기분 나빠진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높은 점수는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ohen 등(198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3-.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0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각된 차별감 척도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Sandu와 Asrabadi(1994)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IS)의 하위척도인 지각된 차별감(Perceived Discrimination) 척도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지각된 차별감 척도는 5점 척도의 8문항(예: 나는 사회적 활동을 할 때 다르게 취급된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는 개인이 지각하는 차별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Wei 등(2008)에서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문제중심 대처양식 척도

대처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Heppner, Cook, Wright와 Johnson(1995)의 문제중심 대처양식 척도(Problem-Focused Style of Coping)를 이동기와 박현주(2009)가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제중심 대처양식 척도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중심 대처인 5점 척도의 사려형 대처 7문항(예: 내 문제에 관한 가능한 각각의 해결책들이 가져올 단기적 또는 장기적 결과에 대해 생각한다),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정서중심 대처인 억제형 대처 6문항(예: 너무 좌절감을 느껴서 내 문제와 관련된 일도 포기해버린다), 문제에 대해 강한 감정을 표출하는 정서중심 대처인 반동형 대처 5문항(예: 나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된다),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의 높은 점수는 특정 대처양식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Heppner 등(1995)에서 Cronbach's α 는 사려형 대처 .77, 억제형 대처 .76, 반동형 대처 .7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려형 대처

.81, 억제형 대처 .81, 반동형 대처 .69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척도

개인의 모국문화 정체성과 주류문화 정체성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Ryder, Alden과 Paulhus(2000)의 문화적응 척도(The Vancouver Index of Acculturation; VIA)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문화적응 척도는 두 개의 하위요인인 모국문화 정체성 10문항(예: 나는 나와 같은 민족인 한국 사람과 함께하는 사회적 활동을 즐긴다)과 주류문화 정체성 10문항(예: 나는 캐나다 사람과 함께하는 사회적 활동을 즐긴다)으로 구성되어 있고, 9점 척도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의 높은 점수는 그 문화의 높은 정체성을 의미한다. David 등(2009)에서 Cronbach's α 는 모국문화 정체성 .87, 주류문화 정체성 .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국문화 정체성 .87, 주류문화 정체성 .84로 나타났다.

이중문화 자기효능감 척도

개인의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David 등(2009)의 이중문화 자기효능감 척도(Bicultural Self-Efficacy; BSES)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중문화 자기효능감 척도는 9점 척도의 26문항(예: 나는 한국 사람 뿐만 아니라 캐나다 사람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는 높은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 David 등(2009)에서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우울 척도

일반인의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Radloff(1977)의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CES-D)를 최상진, 양병창, 전경구(2001)가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울 척도는 4점 척도의 20문항(예: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는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는 개인이 지각하는 우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상진 등(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용하여 변인들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각된 스트레스를 통제된 후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대처양식, 문화 정체성,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는 2013년 3월부터 약 4주간 캐나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실시지침을 숙지한 연구원에 의해 설문이 이루어졌고, 면접 설문조사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우편을 통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응답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SPSS 18.0을 사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지각된 차별감은 우울과 정적 상관($r=.41,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각된 차별감이 높을수록 재캐나다 한국인 대학생의 우울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중심 대처양식인 사려형 대처와 우울은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서중심 대처양식과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와 평균 및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 지각된 스트레스	1								
2. 지각된 차별감	.27***	1							
3. 사려형 대처	-.19**	.02	1						
4. 억제형 대처	.60**	.35**	-.18**	1					
5. 반동형 대처	.40**	.30**	.14*	.64**	1				
6. 모국문화 정체성	.09	-.08	.06	.03	.17*	1			
7. 주류문화 정체성	-.06	-.22**	.09	-.02	.04	.32**	1		
8. 이중문화 자기효능감	-.16*	-.38**	.19**	-.18**	-.10	.25**	.69**	1	
9. 우울	.65**	.41**	-.03	.75**	.58**	.04	-.08	-.19**	1
M	18.38	16.64	3.19	2.47	2.70	64.87	53.79	164.34	19.34
SD	4.72	5.95	.71	.78	.70	13.28	12.66	32.01	10.62

* $p < .05$, ** $p < .01$, *** $p < .001$.

우울의 관계에서 억제형 대처($r=.75, p<.01$), 반동형 대처($r=.58, p<.01$)는 우울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서중심 대처양식인 억제형 대처와 반동형 대처를 사용할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화 정체성은 우울과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은 우울과 부적상관($r=-.19,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음을 의미한다. 대처양식, 문화 정체성, 이중문화 자기효능감 변인들의 상관이 .80을 넘지 않았으므로 회귀분석을 실시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재캐나다 한국인 대학생의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통제한 후에도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정적 관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253, p<.001$).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들이 지각하는 차별감은 그들의 우울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차별감과 대처양식의 상호작용 효과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대처양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통제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 변인을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 지각된 차별감과 대처양식을 투입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 지각된 차별감과 대처양식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의 R^2 변화량의 유의성으로 조절효과의 여부를 판단하였다. 세 유형의 대처양식을 차례로 투입해서 위의 회귀분석 절차를 반복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세 유형의 대처양식 모두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지각된 차별감, 대처양식, 문화 정체성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

지각된 차별감, 대처양식, 문화 정체성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통제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의 1단계에 지각된 스트레스 변인을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지각된 차별감, 대처양식, 문화 정체성을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투입한 변인들의 이원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4단계에서는 삼원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4단계에서의 R^2 변화량의 유의성으로 상호작용효과를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대처양식과 모국문화 정체성의 조절효과는 지각된 차별감, 억제형 대처, 모국문화 정체성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처양식과 주류문화 정체성의 조절효과는 세 유형의 대처양식 모두에서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유의미하게 나타난 지각된 차별감, 억제형 대처, 모국문화 정체성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모국문화 정체성 값을 평균 ± 1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높은 수준의 모국문화 정체성과 낮은 수준의 모국문화 정체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가 그

표 2.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대처양식과 모국문화 정체성의 조절효과

종속변인	단계	예측변인		t	R ²	ΔR ²	ΔF	
사려형 대처								
우울	1	지각된 스트레스	.653	12.543***	.423	.426	157.332***	
		지각된 차별감 (A)	.247	4.775***				
	2	사려형 대처 (B)	.073	1.449	.481	.065	8.822***	
		모국문화 정체성 (C)	.000	-.006				
		A X B	.011	.215				
	3	A X C	.034	.675	.475	.002	.288	
		B X C	.023	.454				
	4	A X B X C	-.066	-1.221	.477	.004	1.492	
	억제형 대처							
	우울	1	지각된 스트레스	.653	12.543***	.423	.423	157.332***
		지각된 차별감 (A)	.150	3.363**				
2		억제형 대처 (B)	.513	9.562***	.637	.218	42.677***	
		모국문화 정체성 (C)	.008	.189				
		A X B	.053	1.265				
3		A X C	.005	.104	.642	.010	1.967	
		B X C	.083	1.932				
4		A X B X C	-.104	-2.411*	.650	.010	5.814*	
반동형 대처								
우울		1	지각된 스트레스	.653	12.543***	.423	.426	157.332***
		지각된 차별감 (A)	.175	3.651***				
	2	반동형 대처 (B)	.353	6.973***	.575	.157	26.117***	
		모국문화 정체성 (C)	-.049	-1.073				
		A X B	.063	1.390				
	3	A X C	.029	.627	.574	.005	.867	
		B X C	.003	.066				
	4	A X B X C	-.077	-1.544	.577	.005	2.385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대처양식과 주류문화 정체성의 조절효과

종속변인	단계	예측변인		t	R ²	ΔR ²	ΔF	
사려형 대처								
우울	1	지각된 스트레스	.653	12.543 ^{***}	.423	.426	157.332 ^{***}	
		지각된 차별감 (A)	.249	4.713 ^{***}				
	2	사려형 대처 (B)	.073	1.432	.481	.065	8.828 ^{***}	
		주류문화 정체성 (C)	.007	.133				
	3	A X B	.029	.569				
		A X C	.052	1.011	.485	.012	1.616	
		B X C	.085	1.645				
	4	A X B X C	-.006	-.116	.483	.000	.014	
	억제형 대처							
	우울	1	지각된 스트레스	.653	12.543 ^{***}	.423	.426	157.332 ^{***}
			지각된 차별감 (A)	.144	3.168 ^{***}			
		2	억제형 대처 (B)	.515	9.659 ^{***}	.638	.218	42.768 ^{***}
주류문화 정체성 (C)			-.019	-.454				
3		A X B	.053	1.205				
		A X C	.037	.826	.638	.005	1.011	
		B X C	.020	.452				
4		A X B X C	-.008	-.173	.636	.000	.030	
반동형 대처								
우울		1	지각된 스트레스	.653	12.543 ^{***}	.423	.426	157.332 ^{***}
			지각된 차별감 (A)	.177	3.601 ^{***}			
		2	반동형 대처 (B)	.347	6.888 ^{***}	.573	.155	25.711 ^{***}
	주류문화 정체성 (C)		-.024	-.511				
	3	A X B	.065	1.405				
		A X C	.041	.824	.573	.007	1.090	
		B X C	.017	.342				
	4	A X B X C	-.011	-.201	.571	.000	.041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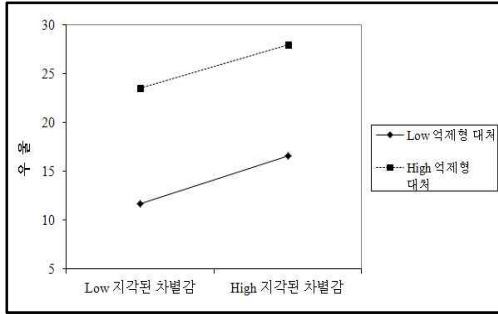


그림 3. 높은 모국문화 정체성일 때 지각된 차별감과 억제형 대처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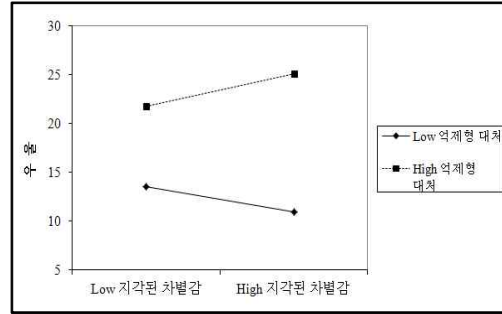


그림 4. 낮은 모국문화 정체성일 때 지각된 차별감과 억제형 대처의 상호작용 효과

표 4.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대처양식과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종속변인	단계	예측변인		t	R ²	ΔR ²	ΔF
사려형 대처							
우울	1	지각된 스트레스	.653	12.543 ^{***}	.423	.426	157.332 ^{***}
		지각된 차별감 (A)	.237	4.277 ^{***}			
	2	사려형 대처 (B)	.079	1.526	.481	.065	8.912 ^{***}
		이중문화 자기효능감 (C)	-.027	-.492			
		A X B	.051	.942			
	3	A X C	-.012	-.239	.483	.009	1.169
		B X C	.100	1.849			
	4	A X B X C	-.025	-.468	.481	.001	.219
억제형 대처							
우울	1	지각된 스트레스	.653	12.543 ^{***}	.423	.426	157.332 ^{***}
		지각된 차별감 (A)	.150	3.189 ^{***}			
	2	억제형 대처 (B)	.513	9.648 ^{***}	.637	.218	42.661 ^{***}
		이중문화 자기효능감 (C)	.003	.078			
		A X B	.068	1.529			
	3	A X C	-.005	-.119	.636	.004	.833
		B X C	.043	.850			
	4	A X B X C	.009	.172	.635	.000	.029

표 4.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대처양식과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계속)

종속변인	단계	예측변인	t	R ²	△R ²	△F	
반동형 대처							
우울	1	지각된 스트레스	.653	12.543***	.423	.426	157.332***
		지각된 차별감 (A)	.175	3.444***			
	2	반동형 대처 (B)	.344	6.884***	.573	.155	25.667***
		이중문화 자기효능감 (C)	-.020	-.405			
		A X B	.060	1.287			
	3	A X C	-.019	-.384	.571	.005	.758
		B X C	-.010	-.200			
	4	A X B X C	-.005	-.106	.569	.000	.011

* $p < .05$, ** $p < .01$, *** $p < .001$.

림 3과 4에 제시되어 있다. 모국문화 정체성의 수준이 높을 때, 낮은 수준의 지각된 차별감보다 높은 수준의 지각된 차별감에서 우울 수준이 높아졌고, 낮은 수준의 억제형 대처보다 높은 수준의 억제형 대처에서 우울수준이 높아져서 두 변인 상응하는 관계를 보였다(그림 3). 반면 모국문화 정체성의 수준이 낮을 때, 지각된 차별감의 수준이 높은 경우 억제형 대처를 많이 사용하면 우울의 수준도 상응해서 증가하나, 억제형 대처를 적게 사용하면 우울수준이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지각된 차별감, 대처양식,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

지각된 차별감, 대처양식,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같은 방식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지각된 차별감, 세 유형의

대처양식,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대처양식,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재캐나다 한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차별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서 대처양식, 문화 정체성,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결과요약과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통제된 후에도 지각된 차별감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각된 차별감이 아시아계 소수민족의 우울과 정적 상관관이 있다는 여러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 (Gee et al., 2007; Noh & Kaspar, 2003, Noh et

al., 1999; Wei et al., 2008). 재캐나다 한국인 대학생들의 지각된 차별감은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는 별개로 우울감을 증가시켰고, 따라서 그들이 지각하는 차별감은 정신건강의 대표적 지표인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스트레스 요인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CES-D 우울 척도의 점수가 16점 이상인 경우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데 (Mulrow, Williams, Gerety, Ramirez, Montiel, & Kerber, 1995), 본 연구 표본에서 16점 이상인 사람이 60%이었고, 11%는 34점 이상으로 중등도 이상의 우울을 보고하였다. Mellin(2008)에서 백인계 미국인 대학생들 중 약 5%가 중등도 이상의 우울을 보고하였으므로 재캐나다 한국인 대학생들의 우울 수준은 백인계 미국인 대학생들과 비교해서 상당한 정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캐나다가 모자이크 사회로 상징되는 소수민족의 독자성을 권장하는 다문화정책을 지향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의외의 결과이며, 이는 한국계 소수민족의 우울수준이 다른 아시아계 소수민족들보다 더 높고, 아시아계 미국인은 백인계 미국인보다 우울수준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Min et al., 2005; Oh, Koeske, & Sales, 2002) 보다 심각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모델 마이너리티(Model Minority)라고 불리며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소수민족들이 다른 소수민족들과 비교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지더라도(Alvarez et al., 2006), 본 연구를 포함한 여러 선행연구들은 차별로 인해 그들의 우울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각된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서 대처양식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중심 대처인 사려형 대처와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

는 정서중심 대처인 억제형 대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강한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정서중심 대처인 반동형 대처 모두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즉 어떤 대처양식도 지각된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는 보호요인 또는 상승시키는 위험요인 역할을 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것인데, Wei, Heppner 등(2010)에서 문제중심 대처인 사려형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인 억제형 대처는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정서중심 대처인 반동형 대처는 차별과 우울의 정적 관계를 더욱 강하게 하였다. 즉 차별을 지각할 때 부정적인 감정을 격하게 표출하며 대처할 때 우울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Wei 등(2008)에서 문제중심 대처인 사려형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인 반동형 대처는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정서중심 대처인 억제형 대처는 차별과 우울의 정적 관계를 증가시켰다. 즉 차별을 지각할 때 스트레스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회피할 때 우울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Brittan, Toomey, Gonzales와 Dumka(2013)에서 차별을 지각할 때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피하는 정서중심 대처인 회피는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인종 차별과 같은 스트레스에 대처할 때 정서중심 대처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Noh et al., 1999; Noh & Kaspar, 2003), 문제중심 대처가 효과적인 경우가 있었다(Noh & Kaspar, 2003; Yoo & Lee, 2005). 이와 같이 지각된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서 대처양식의 조절효과 연구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시사된다(Kuo, 2011). 아

시아계 미국인들이 어떤 대처양식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처양식이 효율적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Harrell, 2000). 따라서 아시아계 미국인보다 세분화된 하나의 민족집단과 세대, 성별 등으로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서 대처양식의 조절효과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대처양식과 문화 정체성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지각된 차별감, 세 가지 유형의 대처양식, 주류문화 정체성의 삼원 상호작용은 모두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지각된 차별감, 세 가지 유형중 억제형 대처양식, 모국문화 정체성의 삼원 상호작용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모국문화 정체성이 낮은 사람들은 지각된 차별감의 수준이 높은 경우 억제형 대처를 많이 사용하면 우울의 수준도 상응해서 증가하나, 억제형 대처를 적게 사용하면 우울수준이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낮은 모국문화 정체성을 지닌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 때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사회적 조화를 위해 스트레스 상황을 최소화하거나 감추는 정서중심 대처인 인내(forbearance) 대처를 사용하면 그들의 심리적 고통은 더욱 증가하였다(Wei, Liao, Heppner, Chao, & Ku, 2012). 모국문화 정체성이 낮은 경우, 그들이 겪고 있는 차별이라는 어려움을 다른 집단원들과 나누지 않고 회피하거나 억제하게 되면 모국문화 집단이 제공할 수 있는 정서적 또는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차별과 같은 스트레스는 개인의 내적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 가족

의 지지와 같은 지지자원이 차별과 우울의 관계를 조절하는 보호요인인데(Tummala-Narra, Alegria, & Chen, 2012), 이러한 지지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우울에 취약할 수 있다(Wei et al., 2012). Noh와 Kaspar(2003)에서 문제 상황을 회피하는 정서중심 대처를 사용하는 한국계 캐나다 이민자의 경우, 모국문화 집단의 교류 또는 지지가 약할 때 차별과 우울의 정적 상관은 더욱 증가하였다. 반면 모국문화 정체성이 낮은 개인의 경우, 억제형 대처를 덜 사용하면, 그들이 지각하는 차별이 높더라도 그들의 우울수준은 크게 낮아졌다. 정서중심 대처인 억제형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대처양식이다(Heppner et al., 1995). 억제형 대처를 덜 사용하는 것은 스트레스 상황을 덜 회피하고 덜 억압하는 것인데, 이러한 개인은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고 정서적 또는 사회적 지지를 잘 활용할 수 있어(Noh & Kaspar, 2003) 지각하는 차별이 높아도 우울에 덜 취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각된 차별감, 대처양식, 주류문화 정체성은 우울에 유의미한 삼원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는 발견할 수 없으나, 최근 주류문화 연구는 모국문화와 쌍을 이룬 차원개념으로 연구되는데, 라틴계 청소년들의 높은 모국문화 정체성과 낮은 주류문화 정체성은 차별과 우울의 관계를 조절하였다(Umana-Taylor & Updegraff, 2007). 또한 아시아계 미국 대학생들이 낮은 모국문화 정체성과 높은 주류문화 정체성을 지니면 그들이 지각하는 차별과 심리적 고통의 정적 관계는 더욱 강해졌다. 반면 모국문화 정체성의 수준에 상

관없이 높은 주류문화 정체성을 지니면 그들이 차별을 지각할 때 그들의 심리적 고통은 다소 감소하기도 하였다(Huynh et al. 2014). 한편 Major와 Sawyer(2009)는 높은 주류문화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도 모국문화 정체성이 강하지 않으면 주류문화 정체성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모국문화 정체성과 주류문화 정체성을 차원개념으로 수용하여 대처양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각된 차별과 우울관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조절효과가 연구될 필요가 있다.

넷째,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대처양식과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지각된 차별감, 대처양식,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의 삼원 상호작용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기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모국문화와 주류문화 모두를 받아들이고 두 문화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이민 1세대에게는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Kim, Cho, Chon-Klessing, Gerace, & Camilleri, 2002).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이 소수민족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낸 Wei, Liao 등(2010)의 연구 대상자들 중 약 80%는 주류문화에서 태어났다. 또한 Miller 등(2011)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는 이민 2세대 집단에서는 나타났지만 이민 1세대 및 1.5세대 집단에서는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이민 2세대라 할지라도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그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의 발달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며, 발달된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이 일

상생활에서 소수민족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으려면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다(Wei, Liao et al., 2010). 모국문화의 가치를 배척하지 않고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주류문화에 적응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Oh et al., 2002) 실제로 영어 능력의 수준은 가장 대표적인 주류문화의 적응 지표이다(Fuetres, Alfonso, & Shultz, 2005).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 중 약 50%는 캐나다에서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었으며, 약 65%는 그들의 영어 수준이 중간 수준 또는 그 이하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들의 거주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문화적응 수준의 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언어능력 또한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아직 이중문화에서 효능감을 발휘하며 살아가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대별로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이 다른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제안(Miller et al., 2011)에 기초해 차후 연구는 이민세대를 반영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표본설정의 편향성이다. 본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의 약 70%가 캐나다의 한 도시에서 5년미만 거주하는 한국인 대학생으로 연구결과를 재캐나다 한국인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아시아계 소수민족들의 차별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지만 한국계 소수민족, 특히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계 소수민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Hovey, Kim, & Seligman, 2006). 연구자들은 아시아계 소수민족을 하나의 동일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Sue & Sue, 2008), 각 아시아 국가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고 아시아 나라들 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나라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캐나다 한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차별과 우울의 관계를 연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한편 북미 대학 내 아시아계 학생의 수가 증가하면서 학생 상담심리사들은 다문화상담에 있어서 적절한 기법 및 지식 등을 습득하고 훈련받지 않은 상태로 아시아계 학생들을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Yeh, 2002). 현재 아시아계 소수민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U.S. Census Bureau, 2013) 아시아계 대학생들의 상담 개입 시 그들의 문화적 가치를 숙지하고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별히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지각된 차별이 내담자들의 우울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잘 다루어줄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이동귀, 박현주 (2009). 대처양식 집단에 따른 꾸물거림 및 정신건강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43-57.
- 박준호, 서영석 (2010).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3), 611-629.
- 최상진, 양병창, 전경구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Aldwin, C. M. (2004). Culture, coping, and resilience to stress. <http://archiv.ub.uni-heidelberg.de/savifadok/volltexte/2010/1333/>
- Alvarez, A. N., Juang, L., & Liang, C. T. H. (2006). Asian Americans and racism: When bad things happen to "Model Minoritie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2(3), 477-492.
- Ahn, A. J., & Kim, B. S. K. (2008). Asian cultural values gap, cognitive flexibility, coping strategies, and parent-child conflicts among Korean American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4(4), 353-363.
- Bernstein, K. S., Park, S. Y., Shin, J., Cho, S., & Park, Y. (2011). Acculturation,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in New York City.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7(1), 24-34.
-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3), 491-511.
- Brittian, A. S., Toomey, R. B., Gonzales, N. A., & Dumka, L. E. (2013). Perceived discrimination, coping strategies, and Mexican origin adolescent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urs: Examining the moderating role of gender and cultural orientation.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17(1), 4-19.
- Brondolo, E., Brady, N., Pencille, M., Beatty, D., & Contrada, R. J. (2009). Coping with racism: A selective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ritique.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32(1), 64-88.
- Caldwell, C. H., Kohn-Wood, L. P., Schmeelk-Cone, K. H., Chavous, T. M., & Zimmerman, M. A. (2004). Racial discrimination and racial identity as risk or protective factors for violent behaviors in African American young adul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3(1-2), 91-105.

- Cassidy, C., O'Connor, R. C., Howe, C., & Warden, D. (2004).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 role of personal and ethnic self-estee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3), 329-339.
- Clark, R., Anderson, N. B., Clark, V. R., & Williams, D. R. (1999). Racism as a stressor for African Americans; A biopsychosocial model. *American Psychologist, 54*(10), 805-816.
- Cohen, S., Kamarck, T., & Mermelstein, R. (1983).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4), 385-396.
- Compas, B. E., Connor-Smith, J. K., Saltzman, H., Thomsen, A. H., & Wadsworth, M. E. (2001).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roblems, progress, and potential in theory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27*(1), 87-127.
- Cristini, F., Scacchi, L., Perkins, D. D., Santinello, M., & Vieno, A. (2011). The influence of discrimination on immigrant adolescents' depressive symptoms: What buffers its detrimental effects? *Psychosocial Intervention, 20*(3), 243-253.
- David, E. J. R., Okazaki, S., & Saw, A. (2009). Bicultural self-efficacy among college students: Initial scale development and mental health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2), 211-226.
- Dion, K. L. (2002). The social psychology of perceived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Canadian Psychology, 43*(1), 1-10.
- Dion, K. L., Dion, K. K., & Pak, A. W. (1992). Personality-based hardiness as a buffer for discrimination-related stress in members of Toronto's Chinese community.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4*(4), 517-536.
- Flores, E., Tschann, J. M., Dimas, J. M., Bachen, E. A., Pasch, L. A., & de Groat, C. L. (2008). Perceived discrimination, perceived stress, and mental and physical health among Mexican-origin adul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30*(4), 401-424.
- Folkman, S., &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3), 219-239.
- Fuetres, J. N., Alfonso, V. A., & Shultz, J. T. (2005). Counseling south American immigrants. *Journal of Immigrant and Refugee Services, 13*(1/2), 155-169.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8), 1311-1327.
- Gee, G. C., Spencer, M., Chen, J., Yip, T., & Takeuchi, D. T. (2007). The association between self-reported discrimination and 12-month DSM-IV mental disorders among Asian Americans nationwid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4*(10), 1984-1996.
- Gomez, J., Miranda, R., & Polanco, L. (2011). Acculturative stress,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vulnerability to suicide attempts among emerging adul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11), 1465-1476.
- Harrell, S. P. (2000). A multidimensional conceptualization of racism-related stress: Implications for the well-being of people of color.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0*(1),

- 42-57.
- Heppner, P. P., Cook, S. W., Wright, D. M., & Johnson, C. (1995). Progress in resolving problems: A problem-focused style of cop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3), 279-293.
- Heppner, P. P., Heppner, M. J., Lee, D. G., Wang, Y. W., Park, H. J., & Wang, L. F. (200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collectivistic coping styles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107-125.
- Hong, H. J. (2010). Bicultural competence and its impact on team effective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Cross Cultural Management, 10*(1), 93-120.
- Hong, Y. Y., Benet-Martinez, V., Chiu, C. Y., & Morris, M. W. (2003). Boundaries of cultural influences: Construct activation as a mechanism for cultural differences in social percep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4*(4), 453-464.
- Hong, Y. Y., Morris, M. W., Chiu, C. Y., & Benet-Martinez, V. (2000). Multicultural minds: A dynamic constructivist approach to culture and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55*(7), 709-720.
- Hovey, J. D., Kim, S. E., & Seligman, L. D. (2006). The influences of cultural values, ethnic identity, and language use on the mental health of Kor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Psychology, 140*(5), 499-511.
- Huynh, Q-L., Devos, T., & Goldberg, R. (2014). The role of ethnic and national identifications in perceived discrimination for Asian Americans: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buffering effect of group identifications on psychological distress. *Asia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5*(3), 161-171.
- Jung, E., Hecht, M. L., & Wadsworth, B. C. (2007). The role of identity in international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United States: A model of depression level, identity gaps, discrimination, and accultu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1*(5), 605-624.
- Kim, H. S., Sherman, D. K., Ko, D., & Taylor, S. E. (2006). Pursuit of comfort and pursuit of harmony: Culture,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see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12), 1595-1607.
- Kim, M. M., Cho, H., Cheon-Klessig, Y., Gerace, L. M., & Camilleri, D. D. (2002). Primary health care for Korean immigrants: Sustaining a culturally sensitive model. *Public Health Nursing, 19*(3), 191-200.
- Kuo, B. C. H. (2011). Culture's consequences on coping: Theories, evidences, and dimensionalit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2*(6), 1084-1100.
- LaFromboise, T., Coleman, H. L., & Gerton, J. (1993). Psychological impact of biculturalism: Evidence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14*(3), 395-412.
- Lazarus, R. S. (1993). Coping theory and research: Past, present, and future. *Psychosomatic Medicine, 55*(3), 234-247.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ee, R. M. (2005). Resilience against discrimination: Ethnic identity and other-group orientation as

- protective factors for Korean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1), 36-44.
- Major, B., & Sawyer, P. J. (2009). *Attributions to discrimination: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Handbook of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New York: Psychology Press.
- Mellin, E. A. (2008). Rejection sensitivity and college student depression: Findings and implications for counseling.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11(1), 32-41.
- Meyer, I. H. (2003). Prejudice,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opulations: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evidence. *Psychological Bulletin*, 129(5), 674-697.
- Miller, M. J., Yang, M., Farrell, J. A., & Lin, L. L. (2011). Racial and cultural factors affecting the mental health of Asian American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1(4), 489-497.
- Min, J. W., Moon, A., & Lubben, J. E. (2005). Determinants of psychological distress over time among older Korean immigrants and non-Hispanic white elders: Evidence from a two wave panel study. *Aging and Mental Health*, 9(3), 210-222.
- Mossakowski, K. N. (2003). Coping with perceived discrimination: Does ethnic identity protect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4(3), 318-331.
- Mulrow, C. D., Williams, J. W., Gerety, M. B., Ramirez, G., Montiel, O. M., & Kerber, K. (1995). Case-finding instruments for depression in primary care setting.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22(12), 913-921.
- Nguyen, A. M. T. D., & Benet-Martinez, V. (2013). Biculturalism and adjustment: A meta-analysi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4(1), 122-159.
- Noh, S., Beiser, M., Kaspar, V., Hou, F., & Joanna, R. (1999). Perceived racial discrimination, coping, and depression among Asian refugees in Canada.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3), 193-207.
- Noh, S., & Kaspar, V. (2003).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acculturation, and ethnic support.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2), 232-238.
- Omizo, M. M., Kim, B. S. K., & Abel, N. R. (2008). Asian and European American cultural values, bicultural competence, and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mong Asi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6(1), 15-28.
- Oh, Y., Koeske, G. F., & Sales, E. (2002). Acculturation,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2(4), 511-526.
- Pascoe, E. A., & Richman, L. S. (2009).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5(4), 531-554.
- Pieterse, A. L., & Carter, R. T. (2007).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life stress, racism-related stress, and psychological health among Black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1), 101-109.
- Portes, A., & Rumbaut, R. G. (2006). *Immigrant America: A portrait*. Berkeley, CA: University

- of California Press.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social Measurement, 1*(3), 385-401.
- Rankin, S. R., & Reason, R. D. (2005). Differing perceptions: How students of color and white students perceive campus climate for underrepresented group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6*(1), 43-61.
- Ruzek, N. A., Nguyen, D. Q., & Herzog, D. C. (2011). Acculturation, enculturation, psychological distress and help-seeking preferences among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Asia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2*(3), 181-196.
- Ryder, A. G., Alden, L. E., & Paulhus, D. L. (2000). Is acculturation unidimensional or bidimensional? A head-to-head comparison in the prediction of personality, self-identity, and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1), 49-65.
- Sanders-Thompson, V. L. (2002). Perceptions of distress among African American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8*(2), 111-117.
- Sandhu, D. S., &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1), 435-448.
- Schmitt, M. T., & Branscombe, N. R. (2002). The meaning and consequence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in disadvantaged and privileged social group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2*(1), 167-199.
- Schmitt, M. T., Branscombe, N. R., Postmes, T., & Garcia, A. (2014). The consequence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for psychological well-being: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0*(4), 921-948.
- Schwartz, S. J., & Unger, J. B. (2010). Biculturalism and context: What is biculturalism, and when is it adaptive? *Human Development, 53*(1), 26-32.
- Sirin, S. R., Ryce, P., Gupta, T., & Rogers-Sirin, L. (2013). The role of acculturative stress on mental health symptoms for immigrant adolescent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9*(4), 736-748.
- Skinner, E. A., Edge, K., Altman, J., & Sherwood, H. (2003). Searching for the structure of coping: A review and critique of category systems for classifying ways of coping. *Psychological Bulletin, 129*(2), 216-269.
- Stroink, M. L., & Lalonde, R. N. (2009). Bicultural identity conflict in second-generation Asian Canadian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9*(1), 44-65.
- Sue, D. W., & Sue, D. (2008).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5th ed.). New York: Wiley.
- Taylor, J., & Turner, R. J. (2002). Perceived discrimination, social stress, and depression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5*(3), 213-225.
- Tummala-Narra, P., Alegria, M., & Chen, C-N. (2012). Perceived discrimination,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among South Asians: Mixed findings. *Asia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3*(1), 3-16.
- Umana-Taylor, A. J., & Updegraff, K. A. (2007).

- Latino adolescents' mental health: Exploring the interrelations among discrimination, ethnic identity, cultural orientation, self-esteem,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dolescence*, 30(4), 549-567.
- U. S. Census Bureau, 2013.
- Wei, M., Heppner, P. P., Ku, T. Y., & Liao, K. Y. H. (2010). Racial discrimination stress, coping,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Asian Americans: A moderation analysis. *Asia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2), 136-150.
- Wei, M., Ku, T. Y., Russell, D. W., & Mallinckrodt, B. (2008). Moderating effects of three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o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 minority stress model for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4), 451-462.
- Wei, M., Liao, K. Y. H., Chao, R. C. L., Mallinckrodt, B., Tsai, P. C., & Botello-Zamarron, R. (2010). Minority stress, perceived bicultural competenc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ethnic minorit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75(4), 411-422.
- Wei, M., Liao, K. Y. H., Heppner, P. P., Chao, R. C. L., & Ku, T. Y. (2012). Forbearance coping identification with heritage culture, acculturative stres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1), 97-106.
- Yeh, T. L. (2002).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who are educationally at risk. *New Directions for Students Services*, 2002(97), 61-71.
- Yeh, C. J., Inman, A. C., Kim, A. B., & Okubo, Y. (2006). Asian American Families' collectivistic coping strategies in response to 9/11.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2(1), 134-148.
- Ying, Y. W., Lee, P. A., & Tsai, J. L. (2000). Cultural orientation and racial discrimination: Predictors of coherence in Chinese American young adult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4), 427-442.
- Yoo, H. C., & Lee, R. M. (2005). Ethnic identity and approach-type coping as moderators of the racial discrimination/well-being relation in Asian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497-506.
- 논문 투고일 : 2015. 06. 25
1 차 심사일 : 2015. 07. 03
게재 확정일 : 2015. 08. 30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in Korean Canadian College Students: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rategies, Cultural Identity and Bicultural Self-Efficacy

Anna(OAN NA) Lee

Sung Moon Li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rimary goal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rategies, cultural identity, and bicultural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of Korean Canadian colleg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214 Korean Canadian college students studying in Canada through an online and offline survey. A direct effect of perceived discrimination on depressive symptom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were examined by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three-way interaction of perceived discrimination, coping strategies, and cultural identity, and perceived discrimination, coping strategies, and bicultural self-efficacy on depressive symptoms were examined. Results from a hierarchical regression indicated that perceived discrimination significantly predicted depressive symptoms and this finding is in line with previous studies. Second, reflective, suppressive, and reactive coping strategies did not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Third, the three-way interaction effect of perceived discrimination, suppressive coping strategy, and heritage identity predicted the depressive symptoms. Low heritage identity, high level of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the frequent use of suppressive coping strategy increased the level of depressive symptoms. Fourth, the three-way interaction effect of perceived discrimination, coping strategies, and bicultural self-efficacy did not predict the depressive symptoms. Limitations and applied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re discussed.

Key words : *Bicultural self-efficacy, cultural identity, depressive symptoms, perceived discrimination, reactive coping, suppressive coping*